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2. 5. 31.(화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
담당과장	김대일 과장(044-203-4030) 강정실 과장(02-2100-7667) 남재헌 단장(051-604-3100)	담 당 자	김파라 팀장(044-203-4031) 이민석 사무관(044-203-4016) 임현수 사무관(02-2100-7670) 김하성 사무관(051-604-3111)

민관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힘 모으기로

- 「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」 부산에서 개최
- 유치체계 강화, 민관관계망 총동원 등 5대 전략 제시
-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공식 출범

□ 정부는 5월 31일(화) **2030 세계박람회 개최 신청지인 부산(북항)에서 「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」를 개최**하였다.

○ 이번 전략회의는 '23.11월 **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, 범국가 유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**되었으며, **정부, 공공기관, 기업, 국회, 부산시 관계자 등** 30여명이 **참석**하였다.

* ('21.6) 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 → ('22.6) 유치후보국 제2차 발표(최초로 대면 진행) → ('22.9) 유치계획서 제출 → ('23.3) 현지실사 → ('23.11) 개최지 최종 결정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①**2030 부산세계박람회 범국가 유치 전략**, 외교부는 ②**유치교섭계획**, 해양수산부는 ③**부지조성계획**을 각각 발표하였고, **「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」 출범식도 함께 진행되었다.**

「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」 개요

◇ **(일시·장소)** '22.5.31(화), 13:40~14:40,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

◇ **(참석자)** ▲[정부·국회] 산업·외교·해수부 장관, 국회 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장
▲[기업] 대한상의 회장,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등
▲[공공기관] 코트라 사장, 한국관광공사 사장, 코이카 이사장 등

◇ **(주요내용)** (정부) 「2030 세계박람회 범국가 유치전략」(산업부)
「2030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계획」(외교부)
「2030 세계박람회 부지조성 계획」(해수부)
(민간) 「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」 출범식

【 정부 : 유치전략 발표 】

1 2030 세계박람회 범국가 유치전략(산업부)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**「2030 세계박람회 범국가 유치전략」**을 발표하고, 3대 강국 브랜드를 활용한 5대 유치전략을 제시하였다.

❶ **(유치체계 강화)** 범부처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**「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」를 6월 중 신설***

* 민간 유치위와 정부 유치지원위 통합 → 총리 소속 유치위(국무총리-민간 공동위원장)
·「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제정(6월 중)

❷ **(3대 강국 브랜드 기반 개최역량 부각)** 열린 경제강국, 최첨단 산업강국, 창의적 문화강국 등 우리의 3대 강점을 부각하여 유치활동 전개

○ 국제박람회기구(BIE) 총회 발표, 유치계획서, 현지실사 등 주요 유치 일정에 우리의 3대 강국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필요성을 설명

<3대 강국 브랜드>

열린 경제강국	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개도국-선진국간 가교 역할 하는 경제강국
최첨단 산업강국	반도체, 배터리, 미래차, 청정에너지 등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산업강국
창의적 문화강국	K-pop, 영화, 드라마, 웹툰 등 세계에 영감을 주는 창의적 문화강국

❸ **(민관 해외관계망 총동원) 정부, 기업, 공공기관, 지자체 등의 4대 협력채널을 활용**하여 BIE* 170개 회원국 대상 전방위 유치 노력 강화

* 국제박람회기구(Bureau Internatioanl des Expositions) : 세계박람회를 주관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

<4대 협력채널 활용 계획>

정 부	재외공관, 산업·통상협력채널, 재외한국문화원
공공기관	코트라·한국관광공사·코이카·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공공기관 해외사업 연계 홍보
지자체	자매결연도시 대상 홍보, 부산 초청 투어
기 업	현지진출기업 중심의 투자대상국 유치지원 활동 거점 역할 수행

❹ **(개최인프라 조성)** 국제박람회기구(BIE) 현지실사('23.3월)와 박람회 개최시기('30.5월)에 맞추어 개최부지부터 기반시설까지 박람회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

❺ **(박람회 유치열기 확산)** 온·오프라인, K-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 확산

2 2030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계획(외교부)

□ 외교부(장관 박진)는 **「2030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계획」**을 통해 주요 경쟁국 동향과 그간의 유치활동을 보고하고, 유치교섭 계획을 발표하였다.

○ 모든 고위급 인사들의 외교활동 계기에 부산박람회 지지를 필수 의제로 반영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, 주요 국제박람회기구(BIE) 회원국에 인지도와 영향력 있는 인사를 부산박람회 특사로 파견

○ 또한, 주요 국제행사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박람회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, 105개 재외공관을 통한 유치활동 및 주한외교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

○ 아울러,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·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한편, 각 교섭 주체들이 "Korea One Team"으로 움직여 총력 외교를 통해 대외 교섭 역량을 응집하고 시너지를 극대화

3 2030 세계박람회 부지조성 계획(해수부)

□ 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**「2030 세계박람회 부지조성 계획」**을 통해 박람회 예정부지인 부산항 북항의 통합 재개발 사업(1단계·2단계)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.

○ 먼저 1단계 재개발사업은 금년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, 교통, 공연, 관광 등 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

* 교통 : 지하차도('24.6), 복합환승센터('26.11), 트램('27.7) / 공연 : 오페라하우스('24)
관광 : 마리나('23년초 준공), 상업·숙박('27년까지 단계적 개장)

○ 또한, 부산항기념관('24.12), 해양레포츠컴플렉스('24.12) 등의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장하여, 1단계 지역을 해양관광중심지로 조기 활성화

○ 2단계 사업(박람회 전시관 부지)의 경우,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에 완료하여, 국제박람회기구(BIE) 현지실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준비상황을 강점으로 부각

○ 또한, 2단계 부지 내에 위치한 항만시설 및 철도시설을 '27년까지는 이전·재배치함으로써 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부지 조성 및 전시관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

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 】

□ 이날 전략회의 직전에는 **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**(위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, 이하 '유치지원 민간위') **출범식도 개최되었다.**

○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에는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삼성, SK, 현대차 등 주요 기업, 전국 72개 지역상공회의소, 해외한인기업협회 참여

○ 기업은 해외 진출 국가 대상 중점 유치 교섭, 비즈니스 포럼 개최, 유통망을 활용한 홍보 등 박람회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이민석 사무관(☎ 044-203-40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